

목포 대표축제 '항구축제'로 거듭난다

해양문화축제 명칭 올부터 변경
항구 특성 살리고 시민참여 확대
'갯가 풍어 굿놀이'도 업그레이드
'유달산꽃축제'는 폐지하기로

목포시 축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목포 항구축제'로 명칭이 바뀌어 '목포는 항구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개화시기를 못 맞춰 매년 '꽃없는 축제'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유달산 꽃축제'는 사라진다. 이에 '목포시 축제가 비로소 제 방향을 찾았다'는 선부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포 대표축제의 진화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해양문화축제' 명칭을 '항구축제'로 바꿔 항구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기로 했다. 지난해 열린 해양문화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소원터널을 지나고 있다.

◇목포시 대표축제의 진화=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목포시 대표축제가 올해부터는 '목포 항구축제'로 명칭이 다듬어질 예정이다. 항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확충되고, 그동안 말 뿐이었던 시민참여도 대폭 확대된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변화다.

또 여러 개의 축제를 개최하기보다 하나로 집약해 누구나 '목포하면 항구축제'가 떠오를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박홍률 시장의 숨은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양문화'가 빠지고 '항구'의 의미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시민 참여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해양문화'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프로그램이 불가피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민 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항구축제는 '항구의 느낌 그대로'의 이미지를 살린다는 게 기본 개념이어서 항구도시 목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특색을 살리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 역시 "국내외 유사 축제의 사례를 비교할 때 주제성·놀이성·대동성이 축제 성공을 판가름하는 3대 요소"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항구도시에서만 전승돼온 문화자원인 '파시(波市=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를 수산물 종합시장과 수협 협업을 얻어 국내 최초로 실제 연출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어물 난장 도깨비 장터'로 명명된 파시에는 ▲역사지결 파시로구나 ▲사람도 삼, 음식도 삼, 향기도 삼, 삼합 존 삼



삼학도 앞바다에서 열린 해상 파시

학데이(day) ▲파시품바 마당놀이 ▲갯가락 장단 등이 선보인다. 정박된 어선에서는 '버스킹' 공연(일명 길거리 공연)도 펼쳐진다.

또 하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갯가 풍어 굿놀이'가 꼽힌다.

이는 길놀이 행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목포 내항에 정박돼 있는 중소형 어선에 만선 깃발을 내걸고 퍼레이드를 연출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신나는 마당이 펼쳐 축제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어 내항과 삼학도를 연결하는 단순 부잔교가 아니라 삼학도의 전설을 살린 '천년의 만남, 사랑의 오작교'를 놓아 활용도를 높인 점도 볼거리다. 이곳에는 삼학선녀가 상사 배치되고 하트 모양의 터널과 함께 포토 존을 설치, 사랑을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한 게 특징이다.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열린 유달산 꽃축제는 올해 20회를

맞아 사실상 폐지되고, 봄꽃 나들이 주간을 정해 2주간 운영된다. 그동안 유달산 꽃축제는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 개최됐으나 기간이 짧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기후변화로 유달산 꽃 개화시기가 일정치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개선방안은=김희승 동신대교수는 "파시는 목포항의 옛 모습을 부각시켰고 '어게인(A-gain) 1987 물고기 등(燈) 페스티벌'은 진일보한 전시형태로 볼거리 제공과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했다"고 평했으나 "남도 갯길 풍어 길놀이는 만족도가 낮아 관광객 참여가 필요하고 목포시의 비전이 축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철현 대구대교수는 "항구 문화를 경험하는 파시 프로그램, 어촌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는 어구전시 체험 존 운영, 바지선을 이용한 항구연결은 잘된 점이지만, 축제 개최 시기 조정을 비롯해 축제와 연계한 도시 관광의 미흡, 파시의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축제 개최시기와 관련 "갈치와 조기 많이 잡히는 가을에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구매력을 유발시켜 실질적으로 목포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과 중국 관광객 흡입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선희 관광과장은 "시민 19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목포 대표축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명칭변경에 찬성한 의견이 64%(1248명)였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유달산 꽃 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하게 됐다"면서 "개최 시기는 타지역 축제가 시기를 조절해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시 설물가 안정 합동단속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등의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가 주요품목의 집중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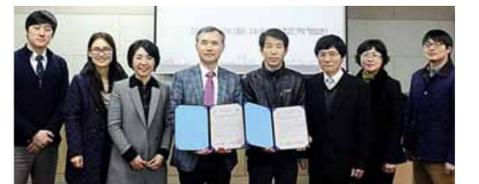
시는 2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개년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식육점, 농·축산유통센터,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쌀 등 미곡류, 사과, 배 등 과실류, 쇠고기 등 육류와 공산품, 수입농산물 중 성수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성수품 가격인상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지도점검을 발의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성수용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등을 조사한 주간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농산물 사주기, 할인판매 업소 이용하기,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촉진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대·커리어코칭 '취업성공 패키지' 협약



목포대학교는 최근 종합인력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커리어코칭 연구소와 청년실업 예방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학협업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미취업 졸업자 발굴과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성공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취업지원 기업간 협업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포대는 미취업 졸업자들에게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참여에 협력하며, (주)커리어코칭연구소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 및 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목포=김준성기자 kjs0533@

목포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홍보관 운영

목포시 보건소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과 위험요인을 알리기 위해 민원실에 동영상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민원실에 TV 동영상 시스템을 설치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건강위험 요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심뇌혈관 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치료일정 알림 서비스 ▲교육·상담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범시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2000+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